

## 성별, 연령, 및 치매상태 정보제공에 따른 노인학대 지각의 차이

박진희·윤가현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요약) 본 연구는 성별, 연령, 및 치매상태의 정보제공에 따른 노인 학대 지각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치매상태 정보제공 여부란 노인학대를 측정하는 연구도구의 시나리오 속에 등장하는 노인이 치매환자임을 연구대상자에게 알려주는가의 여부를 말한다. 연구대상자는 30대와 50대의 기혼 성인남녀 304명이었으며, 65세 이상 노인과 동거여부 및 교육수준을 공변인으로 통제시킨 상태에서 노인학대 지각의 차이를 비교했다. 여성보다 남성들이 시나리오 속에 등장하는 노인에게 향한 며느리의 행동을 노인학대라고 지각하는 수준이 더 높았던 반면, 연구대상자들의 연령에 의한 노인학대 지각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 시나리오 속의 할머니가 '치매환자'라는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할머니에게 보인 며느리의 행동이 학대와 더 거리가 멀다고 지각하였으

며, 상호작용의 효과는 연령과 치매여부사이에서만 나타났다. 즉 30대의 경우 치매할머니에게 보인 며느리의 행동이 치매환자가 아닌 할머니에게 보인 며느리 행동보다 학대와 더 거리가 멀다고 지각했던 반면, 50대의 노인학대 지각은 할머니의 치매상태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Key words: 가족학대, 노인학대, 연령 차, 치매상태]

노인학대(elder abuse)는 가족학대에 속하는 다른 분야들에 비하여 대중이나 전문가들의 관심을 비교적 늦게 받아온 분야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1960년대에는 아동의 신체적 학대, 1970년대에는 가정폭력, 그리고 1980년대에는 아동 성 학대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로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는 1980년대까지도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Kemp, 1997; Pillemer & Finkelhor, 1988). 그렇지만 노인들의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1990년대에 들어서야 노인학대가 범세계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우리 문화권에서는 극히 최근에 와서 노인을 홀대(mis-treatment)하거나 학대(maltreatment)하는 행위를 ‘현대판 고려장’으로 비유하면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서운, 2001; Kemp, 1997).

노인학대가 가족학대의 다른 영역들과 비교할 때 왜 주목을 가장 늦게 받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우선 노인학대가 가정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기에는 너무 민감한 영역이었다는 점을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노인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와 고정관념을 꼽을 수 있다. 실제 노년기가 되면 의존성의 증가, 신체적 쇠퇴, 지적 능력의 상실, 사회적 역할의 감소 등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노인들은 존재 가치를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 이러한 경향은 노인이 치매환자일 경우 더욱 심한 편이다 (김태현 · 한은주, 2000; 윤가현, 1993; 이성희 · 한은주, 1998; Jorm, 1991; Kemp, 1997).

전통적으로 우리 문화권에서는 성인자녀가 그들의 노부모를 부양

## 치매상태와 노인학대

해왔고, 또 노부모들도 자녀들로부터 부양 받기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산업화 사회의 말기에 접어들었던 20세기 후반이래 노부모의 부양에서 주 역할을 맡아왔던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함과 동시에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보장제도와 노인복지제도 등 가족지원체계가 충분히 정착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초래되었으며, 이 때문에 의존적인 노부모를 장기간 수발해야 하는 성인자녀는 노부모를 부양할 때 부담이나 스트레스, 가족구성원들간의 불화를 심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노부모를 부양하는 상황에서 성인자녀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은 노인을 학대하거나 방임할 수 있는 잠재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현·한은주, 2000; 이영숙, 1997; 전길양·송현애, 1997).

노인학대는 연구자들마다 그리고 문화권마다 약간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그렇지만 노인학대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가족이나 친지와 같이 노인과 개인적인 또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심리적 고통 또는 물질적 손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박진희·윤가현, 2001; Salend, Kane, Satz, & Pynoos, 1984).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여러 연구자들은 노인학대의 유형을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1) 습관적으로 노인에게 언어적 모욕이나 협박을 가하면서 심리적인 고통을 주는 심리적 학대 (psychological mistreatment) 또는 만성적인 언어적 공격행위 (chronic verbal aggression), (2) 노인에게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신체적 공격행위 (physical aggression), (3) 노인의 소유물이나 재산을 오용하거나 훔치는 재정적 또는 물질적 학대 (financial or material mistreatment), 그리고 (4)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도움을 노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방임 (neglect) 등 네 가지 분류가 그 예이다 (Comijs, Pot, Smit, Bouter, & Jonker, 1998; Neale, Hwalek, Goodrich, & Quinn, 1996).

우리나라에서는 전길양과 송현애(1997)가 노인학대를 신체적 학대 및 방임, 심리적 학대 및 방임, 재정적 학대 및 방임, 그리고 유기 (abandonment) 등으로 분류했는가 하면, 이성희와 한은주(1998)는 그

와 유사하게 신체적 방임, 신체적 학대 및 유기, 심리적 학대 및 방임, 재정적 학대 및 방임 등으로 구분했다. 전통적으로 노인부양을 자녀들의 의무로 받아들이온 우리문화권에서 노인학대를 바라보는 입장이 바로 ‘유기(abandonment)’라는 점에서 서양과 다른데, 여기에서 유기란 노인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노인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전길양 · 송현애, 1997).

노인학대의 발생빈도는 연구자마다 약간 다르게 보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고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를 조사한 이영숙(1997)은 가벼운 형태까지 포함시킬 때 조사대상자 노인(117명)의 약 70%가 경험한 것으로 보고했다. 또한 김현수(1997)는 43.8%의 노인들이 학대를 한번이라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하거나 함께 살기 싫어하는 느낌을 받은 경우 등 심리적 학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왜 노인학대가 일어나는가의 노인학대 발생위험의 요인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 중에서 자녀에 대한 의존성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여성 노인일 때 학대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현 · 한은주, 2000). 그 중에서도 의존성이 학대 가능성과 관계가 가장 높았는데, 신체적 · 정신적인 장애가 있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보호를 받고 있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양을 의존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윤진, 1994; 이성희 · 한은주, 1998; 한동희, 1996; Salend 등, 1984; Saveman, Astrom, Bucht, & Norberg, 1999).

의존성의 경우도 신체적 또는 인지적 측면이 재정적인 측면보다 학대를 받을 가능성과 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노인의 의존성 증가로 인하여 부양자의 책임감이나 부담감, 스트레스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동희, 1994; Pillemer & Suitor, 1992; Lachs & Pillemer, 1995; Neale 등, 1996). 특히 부양해야 하는 노인이 치매 환자일 경우 그 가족들의 부담이 더 가중되어 가족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윤진, 1994; 이성희 · 한은주, 1998; 한동희, 1996; Pillemer & Suitor, 1992). 치매노인을 부양

## 치매상태와 노인학대

---

하고 있는 가족들 중에서도 그 주된 책임을 맡고 있는 며느리는 부담이나 불안, 우울증 수준이 높았으며, 또 치매환자와 부양자 사이에 오고 가는 언어적, 신체적 행위가 학대행위로 해석되거나 오인되는 문제가 파생되기도 한다 (Coyne, Reichman, & Berbig, 1993; Youn, Knight, Jeong, & Benton, 1999).

부양자와 노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상황을 학대행위라고 지각하는 정도는 연령 및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성인기 중기(50세에서 만64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성인기 초기(30대에서 40대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들보다 경미한 수준의 행위까지도 노인학대라고 해석하는 등 학대의 범주를 넓게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령차이는 성인기 중기의 개인들이 노인의 부양자일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노화과정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더 풍부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성희·한은주, 1998; 전길양·송현애, 1997; Childs, Radika, & Reinberg, 2000). 반면에 성인초기의 사람들이 성인 중기의 사람들보다 노인학대를 더 많이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Neikrug & Ronen, 1993), 또 2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정서적 학대와 방임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 남자가 여자보다 심각한 학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수·이용환, 2000).

지금까지 시도되어온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노인이나 부양자를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학대의 실태나 원인을 알아보려는 것들이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연구들의 대다수가 인지적 기능의 쇠퇴로 인하여 신체 및 정신적인 의존성이 매우 높은 치매환자의 특수성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성만을 파악하였다. 다시 말하면, 노인학대의 대상자가 노인성 치매환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노인학대를 이해하는 수준이 유사한지를 알 수 없다.

노인성 치매(senile dementia) 환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물론 증상은 개인차를 보이거나 치매의 원인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지만, 초기 증상으로는 인물이나 최근 사건에 대한 회상 곤란, 사고의 경직성 증가, 초조나 피로 및 불안감 증가, 기분이나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 등이다. 그러나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2년 정

도 지나면 성격의 변화가 두드러지며, 시간경과와 함께 인지기능의 상실도 심각해진다. 또 치매의 말기 증상을 보이는 상태 이전까지는 인물에 대한 방향감각(orientation: 지남력)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방향감각이 상실되면서 문제해결이나 상황판단이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환자에 대한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면, 환자가 집을 나가면 찾아오지 못하며, 대소변 가리는 일도 힘들어진다 (Forette, 1991; Jorm, 1991).

상기의 특성을 보인 치매노인을 보호하는 주 부양자(primary caregiver)에 관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치매노인을 보살피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부양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은 매우 큰 편이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표출되는 치매환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의해 당황하게 된다. 또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분노를 경험하면서 주 부양자들은 죄책감을 느낀다. 그리고 치매노인의 문제행동과 일상생활의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 부양자는 장기간의 보호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소진하게 되면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우울증과 신체적 질환 등을 겪는데, 실제 치매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들의 심리적 부담, 불안이나 우울증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윤가현, 1998; Bookwala & Schultz, 2000; Coyne 등, 1993; Gauler, Davey, Pearlin, & Zarit, 2000; Youn 등, 1999).

이는 노인성 치매환자들이 보인 문제 행동들이 부양자에게 신체 및 심리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부양자가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노인에게 학대를 가할 가능성을 내포하거나 환자와 부양자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학대로 지각될 가능성도 내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동희, 1994; Kemp, 1997; Lachs & Pillemer, 1995; Neale 등, 1996; Pillemer & Suitor, 199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인성 치매환자와 관련된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역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노인학대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의 문항들이 노인과 부양자간의 상황적인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만 며느리의 행동만을 나열(예: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하여 이 행동이 노인학대에 해당

## 치매상태와 노인학대

되는지 살펴보았다. 또 부양자를 위주로 했던 노인학대 연구를 보면, 일반적으로 노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비하여 부양부담과 스트레스를 더 느끼며 (강유진·한경혜, 1997), 실제 노인학대 경험과 관련된 요인들 중에서 부양스트레스가 가장 주요한 부분으로 드러났다 (이성희·한은주, 199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치매환자인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며느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노인의 행동까지 포함하는 상황적인 맥락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노인학대를 평가하고자 한다. 노인성 치매환자에 대한 학대행위의 지각이 일반적인 노인학대와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시나리오에 등장한 할머니가 치매환자라고 알려준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를 하나의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며느리나 할머니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남녀의 차이나 연령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30대와 50대의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도했다. 그렇지만 65세 이상 노인과의 동거여부는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령차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오늘날 노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성인자녀의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었다. 특히 50대보다는 30대에서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낮아서 (김명자, 1996), 65세 이상의 노인과의 동거여부는 독립변인이 아니라 공변인(covariate)으로 통제시켰다.

상기의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며느리의 입장을 더 이해하는 사람은 할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행동을 학대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더 낮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와 반대로 부양을 받고 있는 할머니의 입장을 더 이해하려는 사람은 며느리의 행동을 학대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 연령에 따라서 노인학대의 지각에서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기대되는데, 이는 50대인 성인기 중기의 대상자들이 30대인 성인기 초기의 대상자들보다 노인부양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연령차가 어느 방향으로 나타날 것인가는 시나리오에서 며느리나 할머니의 입장 중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달려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문제로 시나리오에 등장한 할머니의 치매상태를 알려주는 여부에 따라서 학대행위라고 지

각하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는데, 그 차이도 역시 며느리와 할머니 중 어느 쪽을 더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었다.

## 방 법

###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연령이 30세에서 39세 그리고 50세에서 59세에 해당되는 기혼 남녀 304명(남 152명, 여 152명)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은 성별과 연령(30대와 50대), 그리고 조사도구 내용에서 할머니의 상태를 ‘치매’라고 알려주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8집단(2x2x2)으로 분류하였다. ‘치매’라고 알려준 집단과 그렇지 않았던 집단에 따라서 연령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대응(matching)시켰으며, 각 집단의 평균연령 및 빈도는 <표 1>에 제시했다. 연구대상자들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가 17.1%(52명), 고졸이 38.5%(117명), 그리고 대졸 이상이 44.4%(135명)이었는데, 남성들의 교육수준이 여성들보다 높은 편이었다 ( $F_{1,302} = 6.98, p < .01$ ). 또 연구대상자들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살고 있는 자들의 비율은 19.2%(297명의 응답자 중 57명)이었다.

<표 1> 연령집단의 평균 연령(*SD*) 및 사례수

| 연령층 |           | 남     | 여     | 전체    |
|-----|-----------|-------|-------|-------|
| 30대 | <i>M</i>  | 34.36 | 34.68 | 34.52 |
|     | <i>SD</i> | 2.82  | 2.85  | 2.83  |
|     | <i>n</i>  | 86    | 90    | 176   |
| 50대 | <i>M</i>  | 54.70 | 54.37 | 54.54 |
|     | <i>SD</i> | 2.92  | 2.98  | 2.94  |
|     | <i>n</i>  | 66    | 62    | 128   |
| 전체  | <i>M</i>  | 43.19 | 42.71 | 42.95 |
|     | <i>SD</i> | 10.50 | 10.13 | 10.30 |
|     | <i>n</i>  | 152   | 152   | 304   |

## 치매상태와 노인학대

---

###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65세 이상 노인 생존 여부 및 동거여부를 묻는 문항들과 노인학대지각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포함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노인학대지각을 측정하는 도구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노인학대지각 측정도구.** 노인학대지각의 측정은 15개의 간단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서 각 시나리오에 따라서 응답하도록 한 것이었다. 노인학대지각 측정도구는 <부록>에 소개되어 있는데, 시나리오마다 할머니의 행위와 며느리의 행위의 관계를 설정한 다음 며느리의 행위가 어느 정도 노인학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것이었다. 이는 노인학대를 측정하는 기존의 연구들이 단순히 며느리의 행위만을 나열한 것과 달리 본 도구는 할머니와 며느리의 행위를 자극과 반응의 관계로 기술된 점에서 다르다. 시나리오에서의 할머니 행위는 치매가족 수기를 참고하여 기술했으며, 며느리의 행위는 전길양·송현애(1997)가 사용한 노인학대 인식에 대한 척도의 문항을 참고로 기술하였다.

전길양·송현애(1997)가 사용한 노인학대 측정도구는 심리적, 신체적, 그리고 재정적 형태 학대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되었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에는 재정적 형태의 학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절대 다수의 시나리오들은 심리적 형태의 학대나 학대 내용을 묘사한 것들이었다. 학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에게 언어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협박·공격을 하는 행위, 노인을 무시하는 행위 등이며, 신체적 형태의 학대 내용으로는 며느리가 노인을 밀치는 행위만이 포함되었다.

연구방법론 및 노년학,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 및 대학원생 5명에게 시나리오의 내용이 노인학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적절성을 살펴보도록 의뢰하면서 15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된 노인학대지각 측정도구에 대한 안면 타당도(face validity)는 구했다. 안면타당도 검증에

서 최소한 1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한 시나리오들에 대해서는 어구나 내용 등을 수정한 후 다시 검증을 받았다. 각 시나리오에 대한 반응형태는 “전혀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 0)”부터 “매우 심각한 수준의 학대 행위에 해당된다(= 6)”까지의 Likert식 7점 척도였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 시나리오에 대한 응답점수와 총점사이의 상관(item-total correlation)이 낮은 한 시나리오를 제외시킨 후 14개 시나리오의 응답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는데 (<부록>에는 14개 시나리오만 소개되어 있음), 이 경우 내적 일치도 계수  $\alpha$ 는 .86( $n = 304$ )이었다. 곧 노인학대지각 특정도구의 점수 범위는 0~8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보인 행위를 더 심각한 상태의 학대행위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 연구절차

본 연구에 앞서 연구자들이 개발한 노인학대지각 측정도구를 사용할 때 문제점이나 그 외 예상하지 못한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비연구를 실시했다. 즉 2002년 5월부터 6월까지 대학생 73명(남 40명, 여 3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예비연구에서 15개 시나리오 중에서 1개 시나리오를 제외시킬 때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 $\alpha$ )가 .72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2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 1명이 질문지에 응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주로 소규모 집단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는 1명씩 응답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30대에서는 소규모 집단의 자료수집이 더 많았다. 질문지 작성에 걸린 시간은 설문지 작성요령의 전달을 포함해서 20분을 초과하지 않았다. 글을 읽기가 불편하다고 말한 50대 연구대상자 3명에게는 연구자가 질문지를 읽어 주며 응답하도록 했다. 총 305명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극단적인 응답이 나온( $n = 1$ ) 사례는 제외시켰다. 그래서 남성 152명과 여성 152명, 도합 304명만이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시나리오를 읽기 전 연구대상자들의 절반에게는 시나리오에 등장한 할머니가 ‘치매환자’라고 알려주었으며, 다른 절반에게

## 치매상태와 노인학대

---

는 전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 결 과

#### 성별, 연령, 및 치매여부에 따른 노인학대 지각

성별, 연령, 그리고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할머니의 치매상태를 알려주는 여부’ (이하 치매여부)에 따라서 노인학대를 지각하는 평균점수는 <표 2>에 제시되었다. 노인학대지각의 점수가 성별과 연령, 그리고 치매여부에 따라서 다른지를 변량분석을 살펴볼 때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이 각 집단마다 ‘65세 이상 노인과의 동거여부’ 및 ‘교육수준’이 달랐기 때문에 이들을 공변인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시도하였다. 그와 같은 공변량분석(ANCOVA)을 시도했을 때 교육수준은 공변인으로서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 $F < 1$ ), 또한 세 개의 독립변인들간의 상호작용(성별 $\times$ 연령 $\times$ 치매여부)의 효과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 $F < 1$ ). 이에 공변인을 노인과의 동거여부 하나로만 설정하고 또 세 독립변인들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제거한 상태의 공변량분석의 모델을 설정하고서 다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노인과의 동거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한 297명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했는데, 이는 본 논문에서는 결과 제시를 생략했지만 공변인을 삭제한 상태의 분석( $n = 304$ )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3>에 의하면, 치매여부( $F_{1,289} = 10.64, p < .001$ )와 성별( $F_{1,289} = 6.39, p < .05$ )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매여부와 연령층간의 상호작용만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 $F_{1,289} = 9.26, p < .01$ ), 치매여부와 성별의 상호작용, 성별과 연령층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우선 치매여부와 성별에 대한 주 효과를 설명하자면,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할머니를 치매환자라고 알려준 집단이 그렇지 않는 집단에 비하여 그리고 여성 응답자들이 남성 응답자들에 비하여 며느리의 행동을 학대라고 지각하는 가능성이 더 낮았다고 할 수 있다.

<표 2> 성별, 연령, 및 치매여부에 따른 노인학대 지각 정도

| 치매여부          | 성별 | 연령대 | M     | SD    | n   |
|---------------|----|-----|-------|-------|-----|
| 치매 정보<br>제공 유 | 남  | 30대 | 53.83 | 10.70 | 46  |
|               |    | 50대 | 57.21 | 9.52  | 33  |
|               |    | 전체  | 55.24 | 10.29 | 79  |
|               | 여  | 30대 | 54.04 | 9.92  | 50  |
|               |    | 50대 | 54.13 | 10.51 | 30  |
|               |    | 전체  | 54.08 | 10.08 | 80  |
|               | 전체 | 30대 | 53.94 | 10.24 | 96  |
|               |    | 50대 | 55.75 | 10.03 | 63  |
|               |    | 전체  | 54.65 | 10.17 | 159 |
| 치매 정보<br>제공 무 | 남  | 30대 | 63.08 | 9.62  | 40  |
|               |    | 50대 | 58.21 | 8.26  | 33  |
|               |    | 전체  | 60.88 | 9.29  | 73  |
|               | 여  | 30대 | 59.90 | 13.85 | 40  |
|               |    | 50대 | 53.13 | 10.72 | 32  |
|               |    | 전체  | 56.89 | 12.92 | 72  |
|               | 전체 | 30대 | 61.49 | 11.95 | 80  |
|               |    | 50대 | 55.71 | 9.82  | 65  |
|               |    | 전체  | 58.90 | 11.38 | 145 |
| 전체            | 남  | 30대 | 58.13 | 11.16 | 86  |
|               |    | 50대 | 57.71 | 8.85  | 66  |
|               |    | 전체  | 57.95 | 10.19 | 152 |
|               | 여  | 30대 | 56.64 | 12.11 | 90  |
|               |    | 50대 | 53.61 | 10.54 | 62  |
|               |    | 전체  | 55.41 | 11.56 | 152 |
|               | 전체 | 30대 | 57.37 | 11.65 | 176 |
|               |    | 50대 | 55.73 | 9.88  | 128 |
|               |    | 전체  | 56.68 | 10.95 | 304 |

주. 치매여부에서 치매 정보 제공유무는 시나리오 상의 할머니의 치매상태를 알려준 집단과 알려주지 않는 집단을 나타냄

## 치매상태와 노인학대

<표 3> 치매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노인학대지각의  
공변량분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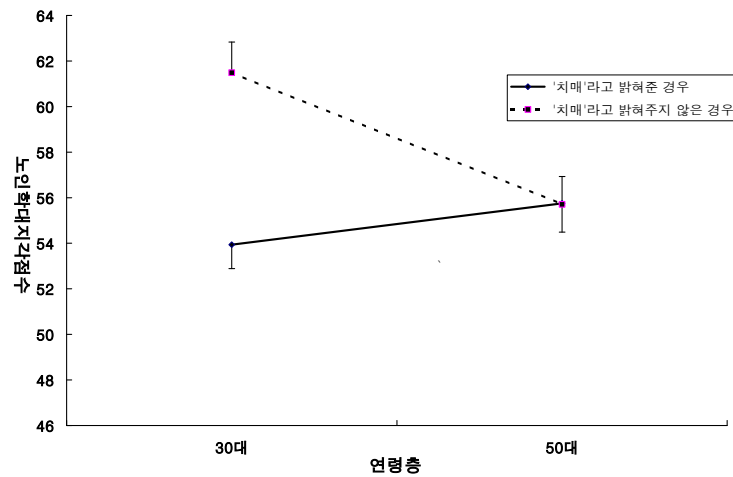
| 변량원      | <i>SS</i> | <i>df</i> | <i>MS</i> | <i>F</i> |
|----------|-----------|-----------|-----------|----------|
| 동거여부     | 494.563   | 1         | 494.563   | 4.57*    |
| 치매여부     | 1151.931  | 1         | 1151.931  | 10.64*** |
| 성별       | 691.686   | 1         | 691.686   | 6.39*    |
| 연령층      | 381.907   | 1         | 381.907   | 3.53     |
| 치매여부×성별  | 128.216   | 1         | 128.216   | 1.18     |
| 치매여부×연령층 | 1002.250  | 1         | 1002.250  | 9.26**   |
| 성별×연령층   | 144.876   | 1         | 144.876   | 1.33     |
| 집단내      | 31268.264 | 289       | 108.195   |          |
| 전체       | 35504.673 | 296       |           |          |

\*  $p < .05$     \*\*  $p < .01$     \*\*\*  $p < .001$

또 치매여부와 연령층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30대 집단에서는 할머니의 치매상태를 알려주었는가의 여부에 따른 차이가 드러났지만 ( $F_{1,174} = 20.34, p < .001$ ), 50대 집단에서는 전혀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 $F < 1$ ). 즉 30대 집단에서는 할머니의 치매 상태를 알려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며느리의 행동을 노인학대와 더 거리가 먼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또 치매환자라고 알려준 집단에서는 30대의 응답자들과 50대의 응답자들간의 차이가 없었지만 ( $F_{1,157} = 1.20, p > .05$ ),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는 30대의 응답자들이 50대의 응답자들보다 며느리의 행위를 노인학대와 더 거리가 먼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 $F_{1,143} = 9.80, p < .01$ ). 그와 같은 치매여부와 연령층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 1>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지각은 본 연구에서 공변인으로 통제시켰던 65세 이상의 노인과의 동거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노인과 함께 살고 있는 집단이 함께 살지 않는 집단보다 노인학대를 지각

하는 수준이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즉 노인과 함께 살고 있는 집단의 경우 평균 54.02( $SD = 12.72$ )인 반면, 노인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집단의 경우 평균 57.35( $SD = 10.42$ )이었다.



<그림 1> 치매여부와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 논 의

우리 문화권에서는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도 며느리가 노인성 치매(senile dementia)환자를 보살피는 주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 환자와 보호자간의 상호작용에서 학대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김태현 · 한은주, 2000; 윤가현, 1998; 이성희 · 한은주, 1998). 본 연구는 노인성 치매환자와 이를 보살피는 며느리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연령 그리고 그 노인이 치매환자임을 알려주는 여부에 따라서 노인학대 지각이 다른가를 살펴본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노인학대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노인이나 부양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실태나 원인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는데, 이

## 치매상태와 노인학대

들은 인지적 기능의 쇠퇴로 인하여 신체 및 정신적인 의존성이 매우 높은 치매환자의 특수성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성만을 파악하는 것들이었다.

노인성 치매환자는 인지적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일상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부양자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이처럼 노인의 의존성이 더 높아지는 것은 부양자로 하여금 책임에 따른 부담감이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연구들은 부양자의 스트레스와 노인학대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즉 부담감 증가는 부양자에게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킨다 (이성희·한은주, 1998; 한동희, 1996; Pillemer & Suitor, 1992). 이는 치매증상을 보인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노인학대를 받을 위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성 치매환자와 관련된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노인학대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의 문항들이 노인과 부양자간의 상황적인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다만 며느리의 행동만을 제시하여(예: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이 행동이 노인학대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치매환자인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며느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노인의 행동까지 포함하여 상황적인 맥락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치매여부, 성별, 연령에 따라 노인학대 지각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되고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에게 시나리오에 등장한 할머니의 상태를 ‘치매’라고 알려주는 여부에 따라 할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행위를 노인학대라고 지각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치매’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며느리의 행동을 학대라고 지각하는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며느리의 행동이더라도 치매노인이 아닐 때보다 치매노인이었을 때 부양자인 며느리의 행위가 노인학대와 더 거리가 멀다는 식으로 해석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노인성 치매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며느리들이 겪는 심리적 고충을 이해하면서 연구대상자들이 며느리의 입장에 더 가깝게 서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치매노인이 보인 문제행동으로 인해 치

매노인과 부양자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치매노인에게 보인 며느리의 행동은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각된다. 그러한 이유는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우선 연구대상자들의 절반 정도에게는 질문지 작성이 끝난 후 “치매노인과 부양자 중 어느 쪽을 더 우선적으로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들의 약 70%는 부양자인 며느리라고 응답했다. 이는 치매노인과 부양자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치매환자가 아닌 노인에게 보인 며느리의 행동이 치매노인에게 보인 며느리의 행동보다 노인학대와 거리가 더 멀다고 지각될 수 있음을 뜻한다.

다른 하나는 노인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 측면이다. 실제 노년기가 되면 의존성의 증가, 신체적 쇠퇴, 지적 능력의 상실, 사회적 역할의 감소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노인들은 존재 가치를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치매노인일 경우 그러한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이다 (Jorm, 1991; Kemp, 1997). 그러므로 정상노인보다는 치매노인에게 보인 며느리의 행동이 학대에 해당되는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지각될 수 있다.

둘째, 성별에 따라서도 노인학대를 지각하는데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며느리의 행위를 노인학대 행위에 더 가깝다고 지각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부양 제공의 성 역할 차이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노인부양과 관련된 일차적 수발 행위에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치매노인을 부양하는데 있어 끊임없는 대화요구에 응해주고 비위생적인 행동을 관리하는 일은 주로 여성이 맡는다. 이러한 부양행위로 인해 부양스트레스, 육체적 피로, 사생활 제약이 심각하기 때문에 (Gauler 등, 2000; Youn 등, 1999), 여성의 경우 부양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며느리의 행위를 노인학대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연령에 따른 노인학대 지각정도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연령이 치매여부에 따라서는 노인학대를 지각하는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30대에서는 할머니의 치매상태

## 치매상태와 노인학대

---

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았던 집단보다 노인학대를 더 낮게 지각했다. 다시 말하면, 30대에서는 치매정보를 제공받은 집단은 며느리 입장을 더 이해하는 반면, 그렇지 않았던 집단은 할머니를 더 동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지만 50대에서는 치매여부에 따라 노인학대 지각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50대는 치매여부 또는 며느리와 할머니 입장 중에서 어느 쪽을 이해하느냐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성인기 중기(50대에서 만 64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성인기 초기(30대에서 40대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들보다 경미한 수준의 행위까지도 노인학대라고 해석하는 학대의 범주를 비교적 넓게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들과 일치한다 (이성희·한은주, 1998; 전길양·송현애, 1997; Childs 등, 2000). 이는 역시 성인초기의 사람들이 성인중기의 사람들보다 노인학대를 더 많이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난 Neikrug와 Ronen(1993)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에 관한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치매여부와 할머니와 며느리간의 상황을 고려하여 노인학대 지각 정도를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선 본 연구는 치매여부에 따라 일반인들의 노인학대에 대한 지각에 차이가 있음을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즉, 할머니가 치매 상태일 경우에는 노인학대라고 지각하는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며느리의 입장을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인성 치매환자는 인지기능의 급속한 쇠퇴와 활동장애의 증상을 보이므로 치매노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노인성 치매환자를 보호하는 주 부양자(primary caregiver)는 노인을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부담감이 크다. 또한 노인성 치매환자들이 보인 문제 행동들이 부양자에게 신체 및 심리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부양자가 의도하지 않아도 노인에게 학대를 할 가능성을 내포하거나 환자와 부양자간의 상호작용과정을 학대로 지각될 가능성도 내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동희,

1994; Kemp, 1997; Lachs & Pillemer, 1995; Neale 등, 1996; Pillemer & Suitor, 1992). 따라서 노인성 치매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구성원 혹은 부양자들에게 노화과정이나 치매의 발병으로 인한 신체적 및 심리적 변화에 대한 교육이 제도적으로 필요함을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며느리의 행동만을 나열하지 않고 할머니와 며느리의 상황적인 맥락을 고려한 척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 지각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노인학대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노인학대 정의에 있어서는 전혀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보다 일방적인 며느리 행동만을 나열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할머니와 며느리의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취하게 되는 며느리의 행동이 학대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다음과 같은 제한점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측정도구 개발에 있어서 각 문항에 대해 노인학대 정도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문장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만약 전혀 학대에 해당하지 않은 문장과 중립적인 문장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더라면, 더 나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측정 도구에 며느리 행동 뿐 아니라 할머니의 행동도 기술하였다. 그렇지만 학대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면 노인학대 상황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연구대상자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다른 제한점으로는 시나리오에 할머니와 며느리로만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며느리 이외의 다른 가족 구성원들(예, 아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치매여부에 대한 차이가 있었더라도 그 차이가 표본의 추출과정(sampling)에서 오차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불확실하다. 이러한 문제는 연구대상자들에게 ‘치매’라고 밝혀준 시나리오와 밝혀주지 않은 시나리오를 절반씩 제공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집단 내(within-subjects)차원의 연구설계가 해결해 줄 것으로 사료된다.

또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동거하는 연구대상자들의 비율이 19% 정도에 불과하여 공변인으로 처리하였던 노인과의 동거 여부도 노인학대 지각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

## 치매상태와 노인학대

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실제로 노인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인학대를 더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노인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부양부담감이 커서 나타난 심리적 고충이 된다 (윤가현, 1998; 이성희 · 한은주, 1998). 따라서 동거여부에 따른 노인학대 지각 정도의 차이는 조사 도구에서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보인 행동에 대해 며느리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강유진 · 한경혜 (1997). 비동거 자녀의 노부모 부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 271-288.
- 김명자 (1996). 신세대와 중년기 부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 및 보상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 (2), 97-110.
- 김태현 · 한은주 (2000). 노인학대의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한국노년학**, 20 (2), 71-89.
- 김현수 (1997). **노인학대의 실태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희 · 윤가현 (2001). 고령화사회와 노인학대. **한국노년학연구**, 10, 113-134.
- 서 윤 (2001. 3. 20.). **노인학대의 개요와 대처방법**.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주최 2001년 전국노인학대예방 · 상담센터 실무자 교육 강의 자료.
- 윤가현 (1993). 정신기능의 퇴화: 노인성 치매의 이해. **현대사회과학연구**, 4, 187-203.
- 윤가현 (1998). 노인성 치매환자의 주 부양자가 지각하는 심리적 부담 및 부양의무감의 비교 문화적 연구. **한국노년학**, 18 (1), 75-90.
- 윤 진 (1994). 폭력없는 가족 -아내구타와 노부모 학대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44 (가을), 107-122.
- 이성희 · 한은주 (1998). 부양자의 노인학대 경험과 관련 요인. **한국노년학**, 18 (3), 123-141.

- 이영숙 (1997). 고부관계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 359-372.
- 이인수 · 이용환 (2000). 노인학대 인식도의 남녀간 비교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가을호, 165-184.
- 전길양 · 송현애 (1997).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 학대와 방임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 (3), 83-94.
- 한동희 (1994). 노인학대에 관한 이론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2 (4), 45-56.
- 한동희 (1996).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ookwala, J., & Schultz, R. (2000). A comparison of primary stressors, secondary stressors, and depressive symptoms between elderly caregiving husbands and wives: The caregiver health effects study. *Psychology and Aging*, 15, 607-616.
- Childs, H., Jr., B., Radika, L., & Reinberg, J. (2000). Young and middle-aged adults' perceptions of elder abuse. *The Gerontologist*, 40, 75-85.
- Comijs, H., Pot, A., Smit, J., Bouter, L., & Jonker, C. (1998). Elder abuse in the community: Prevalence and consequence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46, 885-888.
- Coyne, A., Reichman, W., & Berbig, L.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dementia and elder abus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0, 643-646.
- Forette, B. (1991). Coping with senile dementia. In W. Meier-Ruge (Ed.), *Dementing brain disease of old age* (pp. 133-169). London: Karger.
- Gauler, J., Davey, A., Pearlin, L., & Zarit, S. (2000). Modeling caregiver adaptation over time: The longitudinal impact of behavior problems. *Psychology and Aging*, 15, 437-450.
- Jorm, A. (1991). *Understanding senile dementia*. London: Chapman & Hall.

- Kemp, A. (1997). *Abuse in family*. Singapore: Thomson Learning.
- Lachs, M., & Pillemer, K. (1995). Current concepts: Abuse and neglect of elderly persons.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32, 437-443.
- Neale, A., Hwalek, M., Goodrich, C., & Quinn, K. (1996). The Illinois elder abuse system: Program description and administrative findings. *The Gerontologist*, 36, 502-511.
- Neikrug, S., & Ronen, M. (1993). Elder abuse in Israel.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5 (3), 1-19.
- Pillemer, K., & Finkelhor, D. (1988). The prevalence of elder abuse: A random sample survey. *The Gerontologist*, 28, 51-57.
- Pillemer, K., & Suitor, J. (1992). Violence and violent feelings: What causes them among family caregivers? *Journal of Gerontology*, 47, S165-S172.
- Salend, E., Kane, R., Satz, M., & Pynoos, J. (1984). Elder abuse reporting: Limitations of statutes. *The Gerontologist*, 24, 61-69.
- Saveman, B., Astrom, S., Bucht, G., & Norberg, A. (1999). Elder abuse in residential settings in Sweden.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0, 43-60.
- Youn, G., Knight, B., Jeong, H., & Benton, D. (1999). Differences in familism values and caregiving outcomes among Korean, Korean American and White American dementia caregivers. *Psychology and Aging*, 14, 355-364.

# <부록> 노인학대지각 척도

(치매여부는 연구설계에서 하나의 독립변인이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해서 연구대상자들의 집단을 이분한 것이었다. 즉, 연구대상자의 절반에게는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할머니가 ‘치매환자’라고 알려주었으며, 다른 절반에게는 전혀 그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14개의 시나리오가 아래에 소개되었으며, 시나리오에는 연구대상자마다 다른 순서로 하나씩 제시되었다. 각 시나리오에 대한 응답형태로는 며느리의 행위를 토대로 전혀 학대에 해당되지 않으면 0에 가깝게 그리고 매우 심각한 수준의 학대에 해당된다면 6에 가깝게 표시하도록 한 것이었다.)

※ **박OO** 할머니는 며느리를 따라다니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물으신다. 며느리는 피곤하고 귀찮아서 일만 하는 척 하고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는다.

※ **서OO** 할머니는 한밤중에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부엌에서 딸그락 소리를 내거나 심지어는 식구들을 깨우기까지 한다.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몰래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권해 먹이면서 말썽 피우지 말고 잠이나 자라고 말한다.

※ **강OO** 할머니는 식사 후에도 자주 배가 고프다고 하신다. 며느리는 못들은 척하면서 방문을 꽁 닫고 나가버린다.

※ **이OO**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면서 고함을 지른다. 며느리는 계속 소리지르면 밥을 주지 않겠다고 말한다.

※ **정OO** 할머니가 자신의 쌈짓돈이 없어졌다면서 며느리를 의심하자,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샷대질을 하면서 멀리 양로원으로 보내버리겠다고 한다.

※ 몸이 불편한 **최OO** 할머니는 며느리가 목욕을 시켜주고 있는 도중에 물이 차갑다면서 며느리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다. 며느리는 늙어서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면 빨리 죽어야 한다고 말한다.

※ **윤OO** 할머니는 설탕이 맛있다면서 설탕만 계속 드신다. 며느리는 몸에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설탕을 화장실

변기에 쏟아 버린다.

※ **한OO** 할머니는 화장실에 다녀오면 옷이나 몸이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 나온다. 며느리는 그럴 바엔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말한다.

※ 며느리가 집을 비운 사이에 **오OO** 할머니는 혼자서 요리를 하다가 음식이 타는 것도 모르고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은 채 거실에서 TV를 보고있다. 외출하고 돌아온 며느리는 타는 냄새가 진동하자 부엌으로 달려가면서 할머니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위협한다.

※ **홍OO** 할머니가 청소를 하는 며느리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청소 좀 꼼꼼하게 하라고 간섭을 하자 며느리는 걸레를 방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나가버린다.

※ **양OO** 할머니가 집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올 때마다 며느리는 손자들이 사달라는 것은 다 사주면서 자신에게는 옷도 안 해준다는 말을 한다. 며느리는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미워죽겠다고 투덜거리면서 없어져버렸으면 좋겠다고 한다.

※ **고OO**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는 도중에 소변을 참지 못하고 옷을 망쳐버려 자주 옷을 갈아입자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한심스러운 듯 이제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점점 아이가 되어간다고 말한다.

※ **민OO** 할머니는 버리려고 내놓은 물건들을 자꾸 집으로 가지고 들어와 수납장에 넣어둔다. 며느리는 쓰레기 좀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면서 그 물건들을 마당으로 집어던진다.

※ **장OO** 할머니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며느리 옆에 서성이면서 매번 음식 맛이 별로 라는 등 불평을 한다.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제발 좀 나가있으라면서 밀친다.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Elder Abuse according to Gender,  
Age, and Demented Elderly**

Jin Hee Park & Gahyun Yo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500-75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any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elder abuse in perceiving daughters-in-law's attitude toward elderly lady who was described as being demented or nondemented in 14 vignettes. The participants were the 304 people (152 men & 152 women) living in the Kwangju area. Half of them were in their 30s, and the other half 50s. Men perceived the daughters-in-law's behavior toward the elderly as more serious state of elder abuse than women did. However,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perceiving elder abuse between two age groups. In addition, the participants perceived less serious state of elder abuse when they were informed that the elderly lady was a dementia patient than when they were not informed. Th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gender role as well as the burden of the caregivers with demented patient.

(논문접수일: 2002년 10월 4일)

(수정논문접수일: 2002년 11월 4일)

(논문게재승인일: 2002년 11월 15일)